

# ‘최영필’이라 쓰고 ‘필승맨’이라 읽는다



### KIA 박빙의 경기마다 무실점 구원...연승 발판 연패중에도 “서로 믿어야 승리” 후배들 이끌어

KIA 최고참 최영필이 후배들을 깨운 한마디는 ‘믿음’이었다.

볼과 며칠 전만해도 KIA의 2014시즌은 끝난 것 같았다. 가파른 추락 속에 6연패를 찍으면서 반전을 위한 동력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흔들리던 마운드가 자리를 잡으면서 희망이 생겼다. 뒤늦게 가동된 선발 야구, 에이스 양현종도 12일 NC전에서 7이닝 1실점의 호투를 하며 응답했다. 투구수는 89개. 공에 다리를 맞지 않았다면 완투까지 가능한 페이스였다.

경기가 끝난 후 양현종은 “팀 분위기가 좋다. 미팅을 많이 소집하지 않았는데 연패 상황에서 최영필, 김병현 선배가 미팅을 하면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다. 이기는 습관을 들이면 이길 수 있다고 하셨다. 이기는 기분을 알기 때문에 많이 이기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동안 최영필은 묵묵한 선배였다. 말이 아닌 몸으로 움직이는 선배라는 게 후배들의 얘기였다.

KIA의 어린 투수들은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시는데 알아서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운동을 하신다. 선배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후배들이 따라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랬던 그가 입을 열었다. 후배들을 움직이게 한 말은 무엇이었을까. 막강 필승조로 팀의 허리를 지탱하고 있는 최고참 최영필의 얘기는 ‘믿음’이었다.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동료에 대한 믿음이다.

최영필은 “연패중일 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쫓기게 되니까 편하게 하라고 말을 해줬다. 무조

건 점수를 주지 않고 막으려고만 하면 그 생각에 얽매어서 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혹시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타자들을 믿고 여유 있게 경기를 풀어가자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상대와 싸워야 하는 고독한 승부에 앞서 먼저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도. 또 뒤에서 기다리는 동료들을 믿고 최선을 다하자는 주문이었다.

최영필은 자신이 말한 것을 직접 후배들 앞에서 실천하고 있다. 12일 경기에서 8회 등판한 최영필은 대타 김중호와 역시 대타로 나온 이종욱에게 연달아 안타를 맞으며 무사 2·3루 0 몰렸다. 4-1로 앞선 상황이라는 했지만 자칫하면 흐름을 뺏길 수도 있는 중요한 승부처였다.

최영필은 담담하고 대답했다. 톱타자 박민우를 헛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운 최영필은 대타 조영훈도 헛스윙 삼진으로 처리했다. 한방 있는 나성범까지 조구에 포수 파울플라이로 잡아내면서 승리를 이었다.

최영필은 “연승을 하면서 팀분위기가 좋았다. 또 역전주자가 아니었기에 편하게 경기를 하려고 했다. 낮게 낮게 던지려고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말뿐 만 아니라 몸으로 직접 보여주고 있는 선배, 최영필의 얘기와 시즌은 끝나지 않았다.

최영필은 “연패를 하는 동안 포기 하기 어렵지 않느냐고 후배들을 다독였다. 2~3주 정도만 더 고생을 하면 된다. 끝까지 해보자고 말했다. 몸은 힘들기는 하지만 정신력으로 끝까지 버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덕아웃 특·특·특

### 이대진, 타구 맞고 경중 뛰는 양현종에 “피병이야”

▲“피병이야.”

올 시즌 양현종이 공에 시달리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6월19일 넥센과의 홈경기에서 이택근의 강습 타구에 허벅지를 맞으면서 고생을 했었다. 공교롭게도 부상 이후 첫 등판이었던 SK와의 경기에서도 나주환의 타구가 얼굴쪽으로 향하면서 마운드에 주저앉았다. 다행히 공에 맞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던 장면이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12일 NC와의 경기에서는 지석훈의 타구가 마운드를 맞은 뒤 양현종의 정강이로 향했다. 양현종은 경중거리면서도 공을 잡아 아웃카운트를 잡아내고 덕아웃에 들어갔다. 13일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뼈에 이상은 없었지만 다리가 많이 부었다. 아프다고 호소하는 양현종과 달리 주변 반응은 쿨했다. 이대진 투수 코치는 “피병이야”라며 지나쳤고, 이범호도 “가지가지 한다”고 웃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부상 당시 에타게 마운드로 달려갔던 이들이 다.

▲“이것들이 지지를 잃잖아.”

12일 경기에 대해 얘기하던 한대화 수석코치는 “주어먹었다”고 웃었다. NC 타자들의 컨디션이 나빠서 경기를 이길 수 있었다는 설명이었다. 한 수석코치는 “아무래도 여름을 보내면서 상대 타자들의 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다. 초반 좋았을 때면 경기를 어렵게 할 뻔했다”고 말했다. NC에 풀 시즌 경험의 적은 선수들이 많은 만큼 ‘체력’이 변수가 되고 있다는 분석. 그러면서 KIA에 대한 고민도 잊지 않았다. 한 수석코치는 “우리 타자들도 페이스가 좋지 않다. 웨이트나 체력 훈련 등을 해야하는데 부상자들도 많아서 체력 훈련을 하기 어렵다. 작년에는 웨이트장 시설이 열악해서 그런다고 올해 알아서 잘 하겠다고 하더라도 시원치 않다”고 웃었다. 그러면서 수석코치로 있던 삼성을 예로 들었다. 체력 관리를 잘한 선수들이 많다는 한 수석코치의 얘기. “(체력이 좋으니까) 이것들이 지지를 잃잖아!”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손흥민 대체카드 윤일록·안용우 물망 오늘 AG 축구대표팀 엔트리 발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의 ‘키 플레이어’로 꼽히던 손흥민(22·레버쿠젠)이 합류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표팀에 비상이 걸렸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에서 2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터뜨리고 2014 브라질 월드컵까지 출전한 손흥민이 아시안게임 출전 가능 연령(23세 이하)으로 대표팀에 선발될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이광중 아시아게임 대표팀 감독도 성인 대표팀에서 이미 주축 선수로 우뚝 선 손흥민이 참가 연령대에 속한 만큼 그를 발탁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명단 발표 하루를 남기고 소속팀 레버쿠젠이 시즌 초반 주축 공격수인 손흥민을 국제축구연맹(FIFA) 차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대회에 보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대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이광중 감독은 14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 서 손흥민을 뺀 20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광중 감독은 23세를 넘는 선수 중 3명까지 선발할 수 있는 와일드카드 1순위로 골 결정력을 보완할 스트라이커를 꼽았는데, 그 유력 후보가 ‘고공 폭격기’ 김신욱(26·울산)이다.

손흥민과 소문난 절친인 김신욱이 함께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경우 그야말로 ‘국가대표급’ 공격진을 가동할 수 있었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손흥민의 포지션으로 예상된 왼쪽 측면에 설 만한 자원으로는 윤일록(서울), 안용우, 이종호(이상 전남) 등이 있다.

윤일록과 안용우는 6월 쿠웨이트와의 평가전에서 선발 양쪽 날개로 이광중 감독의 선택을 받은 바 있다.

K리그 클래식 득점 2위(9골)인 이종호는 쿠웨이트전에 출전하지는 않았으나 소속팀에서 왼쪽에 나설 때가 있다.

대표팀 승선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김승태(포항), 이재성(전북) 등도 이 자리에 활용될 수 있다.

청소년 대표팀을 거친 김현(제주), 문정진(포항) 등도 출전할 수 있는 연령대이나 이들의 활약이 손흥민을 포함해 이미 거론되는 선수들에는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와일드카드로 공격력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직하다.

이광중 감독이 이미 첫 번째 카드를 스트라이커에 쓰기로 한 가운데 토너먼트 승부차기에 대비한 골키퍼 보강도 유력하다. 여기는 월드컵 대표팀과 울산 현대에서 선발을 펼치며 주목받은 김승규(24)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한 자리는 미드필더 쪽에 무게가 쏠리는

데, 신형민(28·전북), 이명주(24·알 아인) 등이 후보군에 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험과 수비적인 안정감에서는 신형민이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손흥민이 빠진 상황에서 팀에 화력을 더하기에는 이명주가 더 적합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명주는 올 시즌 K리그 클래식 전반기에 김승태와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10경기 연속 공격포인트 신기록을 세우면서 포항 스틸러스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아랍에미리트로 떠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아직도 그는 도움(9개)과 공격포인트(14개)에서 K리그 클래식 전체 1위에 올라 있다.

그러나 이명주도 현 소속팀인 알 아인인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라 있어 아시안게임 기간인 다음 달 16일, 30일에 4강전을 치를 가능성이 남은 것은 변수다. /연합뉴스